

< 출 장 복 명 서 >

제28차 UN 범죄방지 및 형사사법위원회(CCPCJ) 참가

가. 개요

UN 범죄방지 및 형사사법위원회(CCPCJ, United Nations Commission on Crime Prevention and Criminal Justice)는 UN 총회 결의 46/152호에 의거, UN 경제사회이사회(ECOSOC, UN Economic and Social Council) 산하 7개 기능위원회 중 하나로 1992년 설립되었다.¹⁾ 본 위원회는 범죄방지 및 형사사법 분야의 UN 정책수립기관의 역할을 수행하며, ECOSOC이 선출하는 40개의 임기 3년의 위원국으로 구성된다. ECOSOC이 CCPCJ에 부여한 권한은 국가적·초국가적 범죄에 대한 국제적 대응 향상 및 각국의 형사사법 행정체계의 효율성과 공정성 제고 등을 포함한다. 나아가 회원국들로 하여금 범죄 대응을 위한 국가적·국제적 전략을 수립하고 우선순위를 선정할 수 있도록 전문지식, 경험, 정보 등을 공유할 수 있는 장을 제공한다.

전 세계적 범죄방지 및 초국가적 범죄에 포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1997년 설립된 UN 마약범죄 사무소(UNODC, United Nations Office on Drugs and Crime)가 사무국 역할을 수행하며, 매년 4월 또는 5월 중 1주간 오스트리아 비엔나에서 연례회의를 개최하여 회원국이 제출한 결의안 초안을 전체위원회(COW, Committee of the Whole)에서 검토하고 본회의(Plenary Session)에서 가결한다. 12월경에는 예산안 심의/승인을 위한 속개회의가 개최된다. CCPCJ는 범죄 방지 및 형사사법 분야에서의 UN 활동을 조정, 감독, 평가하며, 지역 내와 지역 간 범죄방지 및 형사사법 관련 기관들의 활동을 지원 및 조정한다. 또한 범죄방지 및 형사사법에 관한 UN 회의 개최를 준비하고, 본 회의에서 제안되는 계획안을 심의하고 동시에 국가 간 협력 방안을 강구하고 여타 유엔 기구들을 자문한다.

나. 참가 내용

제28차 CCPCJ는 2019년 5월 20일부터 24일까지 오스트리아 빈에서 개최되었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에서는 박윤석 부장검사, 김지선 선임연구원, 송재현 국제협력실 팀장이 참석하였다. 본원은 유엔 범죄방지 및 형사사법 위원회 프로그램 네트워크(UNPNI) 소속 참관기관 지위로 본회의 및 부속회의에 참가하였다. 금번 회의에는 127개국(37개 유엔 회원국 대표단, 84개 유엔 회원국 참관인단, 2개 유엔 비회원국 참관인단), 유엔마약범죄사무소(UNODC), 유엔 8개 기구, 12개 UNPNI 기관, 1개 유엔 특별기구, 1명 유엔 특별보고관, 17개 국제기구 등이 참석하였다.

1) "Resolutions Organizational Session For 1992: 1992/1.", <UNODC>,
<https://www.unodc.org/documents/commissions/CCPCJ/ECOSOC_Resolution-1992-1_E.pdf>

<표 1> 제28차 UN CCPCJ 일정

날짜	시간	의제	
5.20. 월	10:00-13:00	개회선언 의제 1. 임원 선출 의제 2. 의제 및 회의일정 채택 의제 3. 일반토의	
	15:00-18:00	의제 3. 일반토의 (계속)	PNI 워크숍 개최 주제: 혐오범죄 대응
5.21. 화	10:00-13:00	의제 5. 주제토의: 모든 형태의 무관용 및 차별을 동기로 하는 범죄예방과 대응을 위한 책임있고 공정하며 인 도적이며 책무성있는 형사사법체계의 책임	전체위원회 결의안 초안 검토
	15:00-18:00	의제 5. 주제토의 (계속)	
5.22. 수	10:00-13:00	의제 4. 전략적 운영과 예산 및 행정 사안 (a) UNODC의 거버넌스 및 재정상황 개선에 관한 정부간 실무그룹 업무 (b) 유엔 범죄방지 및 형사사법 프로그램의 정 책 및 예산 현안에 관한 지침 (c) 위원회 업무 방식 (d) UNODC의 인력구성 및 그 외 사항	행정원-HEUNI 공동주최 Side-Event 개최 주제: 유럽 및 아태 지역 내 난민과 이주 자 대상 형모범죄 대응
	15:00-18:00	의제 6. 범죄방지 및 형사사법 분야 내 UNODC와 회원국의 활동 통합 및 조정 (a) 유엔 초국가적 조직범죄 방지 협약 및 의 정서 비준과 이행 (b) 유엔 부패 방지 협약 비준과 이행 (c) 테러 방지와 근절을 위한 국제협약의 비준 과 이행 (d) 기타 범죄방지 및 형사사법 문제 (e) 유엔 PNI, NGO, 기타 기구 활동	
5.23. 목	10:00-13:00	의제 7. 유엔 기준과 규범의 적용 및 활용 의제 8. 세계범죄동향 및 대응	전체위원회 결의안 초안 검토 (계속)
	15:00-18:00	의제 9. 제13차 범죄 총회 후속조치 및 제14차 총회 개최 준비	
5.24. 금	10:00-15:00	의제 10. 범죄방지 및 형사사법에 있어서 위원 회의 역할과 기여 및 지속가능개발 2030 의제 후속조치, 검토, 이행 의제 11. 제29차 회의 잠정의제	전체위원회 결의안 초안 검토
	15:00-18:00	의제 12. 기타 사항 의제 13. 제28차 위원회 보고서 채택	

<표 2> 회원국 제출 10개 결의안 초안 (전체위원회 속의 후 채택)

순번	문서표기	제출국	결의안 초안(명)
1	E/CN.15/2019/L.2/Rev.1		Combating transnational organized crime and its links to illicit trafficking in precious metals and illegal mining including by enhancing the security of supply chains of precious metals (제출국: 알제리, 온두라스, 페루, 남아공)
2	E/CN.15/2019/L.3/Rev.1		Countering child sexual exploitation and sexual abuse online (제출국: 안도라, 호주, 온두라스, 멕시코, 사우디 아라비아, 페루, 필리핀)
3	E/CN.15/2019/L.4/Rev.1		Strengthening the engagement of all members of society in crime prevention (제출국: 벨라루스, 엘살바도르, 카자흐스탄, 필리핀)
4	E/CN.15/2019/L.5/Rev.1		Integrating sport into youth crime prevention and criminal justice strategies (제출국: 안도라, 미얀마, 필리핀, 태국)
5	E/CN.15/2019/L.6/Rev.1		Promoting technical assistance and capacity-building to strengthen national measures and international cooperation to combat cybercrime including information sharing (제출국: 오스트리아, 벨라루스, 캐나다, 콜롬비아, 온두라스, 멕시코, 페루, 필리핀, 포르투갈, 사우디 아라비아)
6	E/CN.15/2019/L.7/Rev.1		Follow-up to the Thirteenth United Nations Congress on Crime Prevention and Criminal Justice and preparations for the Fourteenth United Nations Congress on Crime Prevention and Criminal Justice (제출국: 벨라루스,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일본, 멕시코, 사우디 아라비아)
7	E/CN.15/2019/L.8/Rev.1		Technical assistance provided by UNODC related to counter-terrorism (제출국: 온두라스, 이탈리아, 사우디 아라비아)
8	E/CN.15/2019/L.9/Rev.1		Countering the smuggling of commercial goods in cases falling within the scope of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against Transnational Organized Crime (제출국: 콜롬비아, 온두라스)
9	E/CN.15/2019/L.10/Rev.1		Education for Justice and the rule of law in the context of sustainable development (제출국: 안도라, 벨라루스, 엘살바도르, 과테말라, 온두라스, 파나마)
10	E/CN.15/2019/L.11/Rev.1		Strengthening regional and international cooperation in crime prevention and criminal justice responses to illicit trafficking in wildlife (제출국: 벨기에, 멕시코, 페루)
12	E/CN.15/2019/L.12/Rev.1		Enhancing transparency in the judicial process (제출국: 터키)

<표 3> 원내 출장자 및 업무분장

소속	직위	성명	업무내용
형사법제연구실	부장검사	박윤석	본회의 의제7 발표
범죄예방·처우연구실	선임연구원/실원	김지선	Side Event 발표
국제협력실	팀장	승재현	PNI Statement 발표

<표 4> 제27차 UN CCPCJ 대한민국 대표단

소속	직위	성명
외교부	주빈 국제기구 대표부 대사	신동익
외교부	주빈 국제기구 대표부 참사관	박은주
외교부	주빈 국제기구 대표부 법무협력관	조주연
외교부	외교부 인권사회과 서기관	유예나
외교부	주빈 국제기구 대표부 2등서기관	김혜진
대검찰청	대검찰청 검찰본부장	정병하
대검찰청	대검찰청 공판1부장	전양석
대검찰청	부장검사	박윤석
법무부	법무부 국제형사과	김남수
법무부	법무부 보호정책과장	정소연
법무부	법무부 보호정책과장	허천영
법무부	법무부 서울소년원 보호주사	명선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범죄예방·치우연구실 선임연구원	김지선
한국형사정책연구원	국제협력실 팀장	승재현

다. 본회의

2019년도 CCPCJ는 예년과 마찬가지로 국제적 범죄추세와 형사정책동향, 범죄방지 및 형사사법 분야의 유엔 기준과 규범의 적용, 유엔 범죄 방지 및 형사사법 위원회 정책방향 등을 정규 의제로 다루었다. 금년 주제토의는 『모든 형태의 무관용 및 차별을 동기로 하는 범죄의 예방과 대응을 위한 효과적이고 공정하며 인도적이며 책무성있는 형사사법체계의 책임』(Thematic discussion on the responsibility of effective, fair, humane and accountable criminal justice systems in preventing and countering crime motivated by intolerance or discrimination of any kind)이었는데, 의제별 주요 토의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의제 1 및 의제 2】 임원 선출과 의제 및 회의일정 채택

2018년 12월 7일, 제27차 위원회는 폐회 시점에 정기 및 회기간 회의 준비에 있어서 적극적 역할을 담당할 차기 회기 의장단 선출을 규정한 유엔 경제사회이사회(ECOSOC) 결의 2003/31호에 의거, 의장단 선출만을 목적으로 한 위원회를 개최하였다. 해당 위원회에서 의장(Chair), 부의장(First

Vice-Chair), 제2부의장(Second Vice-Chair), 제3부의장(Third Vice-Chair), 서기관(Rapporteur)이 선출되었다.

<표 5> 제28차 연례회의 임원진

직책	지역그룹 (국가)	성명
의장	동유럽 지역 (벨라루스)	Alena Kupchyna
부의장	남미 및 카리브해 지역 (브라질)	Jose Antonio Marcondes De Carvalho
제2부의장	서유럽 및 기타 지역 (오스트리아)	Gabriela Sellner
제3부의장	아시아 태평양 (이란)	Kazem Gharib Abadi
보고관	아프리카 (이집트)	Ahmed Tareq Ibrahim Maaty

5개 지역 의장단(나이지리아·일본·보스니아 헤르체코비나·칠레·스웨덴)은 선출직 임원들과 함께 ECOSOC 결의 2003/31호에 준한 확대사무국을 구성, 회의 진행의 사무를 담당하게 되었다. 제29차 위원회는 2019년 5월 20일 개최된 제1회의(1st meeting)에서 유엔 경제사회의사회(ECOSOC)의 결의 2018/244호를 통해 승인한 예비의제 및 회의일정을 확정하였다. 임원으로 선출된 Alena Kupchyna 의장이 개회를 선언하였으며 이어 유엔 총회 의장(President of the Genral Assembly)과 유엔 경제사회의사회(President of the Economic and Social Council) 의장의 영상메시지가 있었다. 유리 페도토프(Yuri Fedotov) UNODC 사무총장은 이어서 기조연설을 실시하였는 바, 그 전문은 다음과 같다.

Good morning and thank you for joining us.

The work of the Crime Commission to advance crime prevention and criminal justice responses and address shared challenges across the UN pillars of peace and security, human rights and development is well recognized.

I have the honour of sharing with you a message from our Secretary-General António Guterres. I am pleased to convey best wishes to this session of the Commission on Crime Prevention and Criminal Justice.

I welcome your timely focus on preventing and countering crime motivated by intolerance and discrimination. The world is experiencing a dangerous rise in xenophobia, hate-filled rhetoric, inciting violence and hate-motivated attacks.

In response to these threats, I have announced two initiatives to mobilize the United Nations system against hate speech and in support of the protection of religious sites. Effective, accountable and human rights-based responses are clearly essential to achieving these aims. Inclusive and sustainable development is also a vital element to prevent and tackle the roots of hate. I therefore welcome your work towards the 14th Congress on Crime Prevention and Criminal Justice next year in Kyoto, where the world will discuss ways to advance the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I am convinced that by working together, we can reject hate, protect our communities against this threat and uphold our shared values. We all have a part to play in fostering a better world for all. In that spirit, I wish you a fruitful gathering.

Excellencies,
Distinguished participants,

The focus of this year's thematic discussion on hate crime demonstrates once again that the Crime Commission is at the vanguard of confronting some of the most urgent problems facing the international community today.

Last year, the Commission discussed cybercrime and adopted resolutions that addressed linked challenges of combatting human trafficking enabled by Internet-based technologies and protecting children. Resolutions tabled at this session seek to further advance these efforts. Crime motivated by intolerance or discrimination, abuses interconnectivity and exploits vulnerability. We can only counter these threats by working together. By

strengthening effective, fair, humane and accountable criminal justice systems that protect people and their rights.

The UN Office on Drugs and Crime remains committed to supporting Member States to take such action through:

- application of the UN standards and norms in crime prevention and criminal justice; and
- implementation of the Conventions against transnational organized crime and corruption;
- as well as the global counter-terrorism instruments.

Through UNODC country, regional and global programmes, we are working with you to prevent and counter:

- human trafficking and migrant smuggling;
- terrorism, terrorist financing and money laundering;
- as well as trafficking in drugs, illicit firearms and wildlife.

Together, we are countering violence, improving prison conditions and expanding access to justice. UNODC is promoting gender equality and mainstreaming in law enforcement and justice, as well as engaging and empowering young people, while protecting their rights.

We must never lose sight of the victims when we talk about criminal justice responses. The UNODC Blue Heart campaign and the Trust Fund for victims of human trafficking are testament to this priority, and we will be welcoming a number of new Member States joining the Blue Heart at a side event later this afternoon. This week UNODC will also be launching the first UN handbook on gender dimensions of criminal justice responses to terrorism.

Indeed, the more than one hundred side events this week speak to the importance of people-centred responses to the diverse challenges addressed by the Commission, and the interest that Member States, civil society and other partners have in this work. This session will also mark a major step towards the fourteenth Crime Congress in Kyoto next April, which will take forward the commitments set out in the Doha Declaration and contribute to efforts to realize the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We look to the Crime Commission for guidance and support to further advance all our efforts.

This includes financial support, so UNODC can provide the quality assistance you expect from us. In return, our office seeks to be as effective and efficient as possible, harnessing innovation and new technologies, to leave no one behind and do our best for the people we serve.

Ambassador Kupchyna,
Dear colleagues,

I wish you productive discussions in the busy week ahead. Thank you.

<그림1> 페도토프 UNODC 사무총장 개회사 전문

2) 【의제 3 및 의제 4】 일반토의 및 전략적 운영

제29차 위원회는 2019년 5월 20일과 21일 그리고 21일 개최된 제1, 제2, 제4, 제5회의(1st, 2nd, 4th, and 5th meetings)에서 일반토의(General debate)을 실시하였다. 제1차 회의에서는 다음의 고위급 인사가 발언하였다: Nobuo Inada 일본 검찰총장, Umar Etsu Mohammed 나이지리아 검찰총장, Josef Moser 오스트리아 법무장관, José Oscar Armando Pineda Navas 엘살바도르 대법원장, Sayed Hussain Aleml Balkhi 아프가니스탄 난민과 송환부 장관, Feng Lijun 중국 법무부 수석자문관, Oleg Syromolotov 러시아 외교부 차관, Olzhas Bektenov 카자흐스탄 반부패국 부국장, Maria Assunta Accili Sabbatini 주유엔 이탈리아 대사, Jackie Wolcott 주유엔 미국 대사, Talya Lador-Fresher 주유엔 이스라엘 대사, Brendon Hammer 주유엔 호주 대사, Gloria Navarrete 주유엔 칠레 대사, Jose Antonio Marcondes De Carvalho 주유엔 브라질 대사. 이어진 제2차, 제4차 그리고 제5차 회의에서

도 유엔 회원국 및 참관국 고위급 인사가 발언하였다.

3) 【의제 5】 주제 토의

제29차 위원회는 2019년 5월 21일 개최된 제3회의 및 제4회의(3rd and 4th meetings)에서 주제토의(Thematic discussion)을 실시하였다.

토의 전 참고자료는 다음과 같다.

(a) Note by the Secretariat - Guide for the thematic discussion
(E/CN.15/2019/6)

의장과 다음의 패널이 오전의 토의를 주재하였다: T. George-Maria Tyendezwa (나이지리아), Tsang Wai-hung (중국), Maria Hilda Marsiaj Pinto (브라질), Christopher Perras (미국). 오후의 토의는 의장과 다음의 패널이 주재하였다: R.M.A.J.P. Bandara (스리랑카), Diego Tipán Naranjo (에콰도르) and Paul Giannasi (영국). 루마니아 대표단이 유럽연합(European Union) 및 유럽 지역 회원국을 대표하여 발언하였으며 이어 태국, 일본, 콜롬비아, 알제리, 모로코, 프랑스, 인도네시아, 미국, 그리고 이란 대표단이 발언하였다. 카자흐스탄, 사우디 아라비아, 노르웨이, 아르메니아 공화국, 베트남, 캐나다, 핀란드, 필리핀 대표단도 발언하였다. 유럽안보협력기구(OSCE) 및 UNITED for Intercultural Action and Friends World Committee for Consultation 등 국제기구 및 NGO 기구 대표단도 발언하였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에서는 승재현 국제협력실 팀장이 PNI 회원기관 자격으로 발언하였는 바, 그 전문은 다음과 같다.

Good morning and thank you for joining us.
On behalf of the Korean Institute of Criminology, it is a great pleasure for me to address the 28th Session of the Commission on Crime Prevention and Criminal Justice.

The Korean Institute of Criminology is a national research think-tank mandated to contribute to formulating national criminal justice policies and preventing crimes in the Republic of Korea through comprehensive and systematic research on the causes of and solutions to various types of crimes.

With respect to crimes motivated by intolerance or discrimination of any kind, the Institute has taken efforts to provide theoretical grounds and practical measures for the protection of the vulnerable and victims of the crime.

Some of the Institute's published research pertaining to the topic are "A Study on Hate Crime in Korea," "The State of Hate Speech and the Response Measures," and "Company's Actions and Remedial Measures for Victims of Sexual Harassment."

The Institute recognizes that implementing measures for increasing social equity and fundamental changes in society to address discrimination and exclusion are as important as holding perpetrators of hate crimes and hate speeches accountable.

In a society ripe with discrimination and intolerance, relative feelings of deprivation induced by social inequity can contribute to occurrence of hate crimes.

The most significant problem with hate crimes lies in the fact that perpetrators of the crimes indiscriminately target innocent people rather than amorphous entities such as a nation or a society.

For this reason, to prevent and counter crimes motivated by intolerance or discrimination, it is important to address inequitable social structures.

In particular, tackling corruption is one of the necessary conditions for a fair, transparent, and just society free from discrimination and exclusion.

A fair and transparent criminal justice system can allow for strict punishment of corruptive behaviors and spread of the culture of transparency.

In this regard, the Republic of Korea enacted the Act on Improper Solicitation and Graft to spread the culture of transparency in both the public and private sector.

The legislation is further strengthened through implementation of private sector compliance systems and measures for protecting whistleblowers.

The Korean Institute of Criminology will take its best efforts in creating effective, fair, humanitarian and accountable criminal justice systems for preventing and countering crimes motivated by intolerance and discrimination.

Thank you.

<그림2> 승재현 팀장 의제5 발표 전문 - 영문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은 각종 범죄의 실태와 원인 및 대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연구함으로써 대한민국의 형사정책 수립과 범죄방지에 이바지하기 위해 설립된 국책연구기관입니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은 사회적 약자와 피해자 보호를 위한 이론적 기반을 제공하고, 구체적 정책방안을 제시하는 역할을 담당하고자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증오범죄 또는 혐오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범죄자 개인에 대한 합당한 처벌 못지않게, 사회적 평등을 이루기 위한 기반을 확충하고 차별과 배제 없는 근본적인 사회변화를 이끌어낼 필요가 있습니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은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증오범죄의 실태 및 대책에 대한 연구’, ‘혐오표현의 실태와 대응 방안 연구’, ‘성희롱 피해자에 대한 기업의 조치와 구제방안’ 등의 연구를 수행하였습니다.

불관용과 차별이 만연한 사회에서는 구조적인 모순으로부터 발생하는 상대적 박탈감에서 비롯된 증오범죄가 발생한다는 원인을 찾을 수 있습니다.

증오범죄의 가장 큰 문제점은 국가와 사회는 무형적인 존재로 직접적인 증오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는 점에서 범죄의 행위가 사회 구성원인 무고한 시민을 대상으로 한 묻지마 범죄의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러므로 국가가 불관용 또는 차별로 인하여 발행하는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사회의 구조적인 모순을 해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즉 부정부패를 차단하여 반칙 없는 공정하고 투명한 정의로운 사회, 차별과 배제가 없는 사회를 만들어야 합니다.

이를 위한 효과적이고 공정한 형사사법제도로는 부정부패에 대한 엄격한 처벌과 시민사회에 대한 청렴의 문화를 확산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건전하고 투명한 사회를 이루기 위하여 ‘부정청탁 방지법’을 제정하여 공무원과 민간인 모두에게 청렴문화를 정착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민간 부문에서도 내부통제 및 위험관리를 위한 컴플라이언스 제도인 ‘준법감시인’ 제도를 만들어 시행하고 있으며, 내부고발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은 불관용 또는 차별로 인하여 발행하는 범죄를 예방하고 대처하는데 있어 효과적이고 공정하며 인도적이고 책임감 있는 형사사법 제도 마련에 기여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림3> 승재현 팀장 의제5 발표 전문 - 국문



4) 【의제 7】 유엔 기준과 규범의 적용 및 활용

제28차 위원회는 2019년 5월 23일 개최된 제7회의 및 제8회의(7th and 8th meetings)에서 의제7 유엔 기준과 규범의 적용 및 활용(Use and application of United Nations standards and norms in crime prevention and criminal justice)를 토의하였다.

회의 전 참고자료는 다음과 같다.

(a) Report of the Secretary-General on the use and application of United Nations standards and norms in crime prevention and criminal justice
(E/CN.15/2019/9)

회의에서는 UNODC 사법국장(Chief of the Justice Section)이 개회발언을 실시하였고 이어 태국, 남아공, 중국, 알제리, 인도네시아, 쿠웨이트 그리고 미국 대표단이 발언하였다. 캐나다, 베트남, 아제르바이잔, 사우디 아라비아 그리고 나미비아 대표단도 발언하였다. PNI 기관 및 NGO 기구에서는 태국사법연구원(TIJ, Thailand Institute of Justice)과 Advancement of Innovative Approaches to Global Challenges 대표단이 발언하였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에서는 박윤석 부장검사가 발표하였는 바, 그 전문은 다음과 같다:

Chairperson,
Excellencies,
Ladies and gentlemen,

It is a great pleasure for me to address the 28th Commission on Crime Prevention and Criminal Justice in which representatives of Member States, UN entities, and civil society discuss and share their in-depth knowledge and experiences on issues in the field of crime prevention and criminal justice.

As you may know, the Republic of Korea has taken institutional and legislative efforts to implement relevant UN standards and norms for building a fair and just society with respect for human rights.

To address corruption crimes, the Republic of Korea launched a special task force on corruption to deter and investigate corruption crimes. In February and July 2018, the Supreme Prosecutor's Office and Seoul Central District Prosecutor's Office established criminal proceeds recovery centers and offshore asset forfeiture groups to systematically address money laundering and to seize illegal proceeds laundered to foreign countries.

Meanwhile, in order to ensure integrity of public officials, the Act on Improper Solicitation and Graft was enacted in 2016 to prevent public officials from receiving bribes and preferential treatments. Such efforts are expected to increase transparency in both the public and the private sectors.

It should also be noted that in 2015, the Korean government ratified the UN Convention against Transnational Organized Crime and its three protocols thereto after adopting an implementing legislation and depositing its instrument of ratification with the UN. The ratification signified that the Republic of Korea has joined the international efforts to combat transnational organized crime and developed effective countermeasures against highly intelligent and sophisticated organized crimes through international mutual assistance.

With respect to victim protection, since 2017, compensation schemes have been expanded to provide necessary economic and psychological supports to crime victims to assist their recovery. At the same time, in order to more effectively address violence against women and children, district prosecutor's offices around the regions established and are operating investigatory departments dedicated to investigate crimes targeting women and children, which facilitated necessary cooperation with the police in the early phases of investigation. The Korean government also takes efforts to treat victims' post-traumatic stress disorders for their psychiatric health. In addition, 'Intermediary' has been fostered to assist communication of victims of sexual crime and child abuse in the process of investigation and trial while training programs for public defenders have been provided to improve their capacities.

Lastly, prison environment and inmate treatment have been largely improved. Correctional facilities are extended and reconstructed to address prison overcrowding while a telemedicine system was established in the corrective services and hospitals for the provision of timely medical services to prison inmates.

In closing, the Korean government will continue to implement UN's protocols and norms in the fields of

crime prevention and criminal justice, and share the responsibility to build a safe global society with the international community.

Thank you.

<그림4> 박윤석 부장검사 의제7 발표 전문 - 영문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각국의 대표단 여러분,

형사사법에 관한 최근의 주요 이슈에 대해 세계 각국의 대표단이 모여 심도 있게 논의하고 서로의 지식과 경험을 공유하는 뜻깊은 자리인 이번 회의에 참석하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은 범죄예방 및 형사사법 분야에서의 유엔 기준과 규범에 부합하기 위하여,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 ‘인권이 존중받는 사회’를 정책 목표로 하여 많은 입법적, 제도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반부패 분야에 있어서, 대한민국은 ‘부패범죄 특별수사단’을 설치하여 부패범죄에 엄정하게 대응하는 한편, 부패범죄를 통해 불법적으로 취득한 이익을 철저하게 환수함으로써 범죄의 동기를 차단하는 데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2018년 2월에는 대검찰청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범죄수익 환수 전담부서를 설치하였으며, 이를 통해 앞으로 자금세탁 등 범죄에 대한 대응 및 범죄수익 환수 등이 체계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2018. 7월 범정부조직인 ‘불법해외재산 환수단’을 설치하여 해외로 불법 유출시킨 범죄 수익을 추적해 환수하고, 역외탈세 행위를 조사하는 임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한편, 공직자 등이 부정한 청탁을 받거나 혹은 대가성 여부와 관계없이 부정한 금품이나 향응 등을 받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공직자 등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기 위해 2016년에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을 제정,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입법적인 노력과 아울러 다양한 제도개선을 통해 앞으로 공공부문은 물론 민간부문의 청렴도도 한층 제고될 것입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초국가적 조직범죄에 관한 유엔의 규범을 충실히 이행하기 위해 형법에 인신매매죄 규정을 신설하는 등 입법적 보완을 거쳐 2015년 UN 초국가적조직범죄방지협약(UNTOC) 및 인신매매방지법정서 등 3개 부속의정서에 대해 국회 비준을 마친 후 비준서를 유엔에 기탁하여 UNTOC 가입을 완료하였습니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초국가적 조직범죄에 공동으로 대응하기 위한 국제적인 흐름에 동참하게 되었으며, 국제공조를 통해 날로 지능화, 고도화되고 있는 조직범죄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범죄피해자 보호와 관련하여, 2017년에 범죄피해구조금 지급 대상을 확대하였습니다. 범죄피해자들이 사회 구성원으로 다시 복귀할 수 있도록 심리치료, 경제적 지원 등 종합적이고 지속적인 지원을 계속 확대하고 있습니다.

여성·아동에 대한 성폭력범죄 등에 보다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전국 주요 지방검찰청에 전문 수사인력으로 구성된 ‘여성·아동범죄조사부’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고, 초동수사 단계부터 검찰과 경찰이 유기적으로 협력하여 여성·아동 대상 범죄에 엄정하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여성·아동 피해자보호와 관련하여 피해자의 가장 큰 고통인 범죄트라우마를 치료하기 위하여 심리치료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사·재판 과정에서 성폭력·아동학대 피해자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도와주기 위한 ‘진술조력인’을 추가로 양성하고, 피해자에 대한 법률적 조력을 보장하는 ‘피해자 국선변호사’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수용자의 수용 환경도 상당히 개선되고 수용자에 대한 처우도 향상되었습니다. 과밀 수용을 완화하기 위해 교정시설의 증·개축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질병이 있는 수용자가 적시에 충분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교정기관과 협력병원 간 원격화상진료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수용자의 의료 처우를 획기적으로 개선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대한민국 정부는 범죄예방 및 형사사법 분야에서 유엔의 기준에 부합하고 이를 이행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며, 국제사회의 책임있는 구성원으로서의 보다 안전한 지구촌을 건설하기 위하여 역할과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림5> 박윤석 부장검사 의제7 발표 전문 - 국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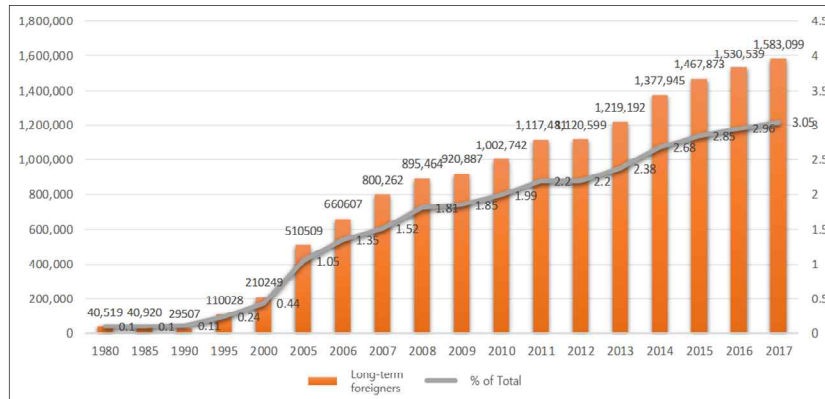
라. 행정원-HEUNI Side Event 개최

한국형사정책연구원과 유럽범죄방지통제연구소(HEUNI)는 제28차 연례회의 셋째 날인 2019년 5월 22일 13:10~14:00 Conference Room MOE100에서 『유럽 및 아시아 태평양 지역 내 난민 및 이주자에 대한 혐오범죄 대응』(Addressing Hate Crimes Against Refugees and Immigrants in Europe and Asia-Pacific)을 주제로 Side Event를 개최하였다. Side Event에서는 Jenita Rauta 핀란드 경찰대학(Police University College, Finland) 연구원, Rick Brown 호주 형사정책연구원(Australia Institute of Criminology) 부원장 그리고 김지선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범죄예방·처우연구실 선임연구원이 각 『핀란드 경찰통계 자료에 따른 혐오범죄 측정』(Suspected hate crimes reported to police in Finland), 『Capitain Cook에서부터 Christchurch까지: 호주 내 혐오범죄 대응』(From Capitain Cook to Christchurch: Addressing Hate Crime in Australia) 그리고 『한국 내 이주자 대상 혐오범죄 대응』(Addressing Hate Crimes against Immigrants in Korea)을 발표하였다.

The recent rise of multiculturalism in Korea seems to refute the country's long-running myth of ethnic homogeneity. The increase in multiculturalism led by a growing number of foreign residents can be explained by three recent trends: a) labor inflows over the 1980s from developing countries to fill dirty, dangerous, and demeaning (the so-called 3D) jobs in labor-intensive sectors, b) rising demands for brides from China and Southeast Asia since 1990s due to the country's skewed gender ratios and women's pursuit of higher education and single living, and c) an increase in the number of international students attending academic institutions in the country since 2000.

Given the trends, from 1980 to 2010, the number of long-term foreigners, those staying in Korea for more than 90 days, has steadily increased from about 40,000 to about a million. Their proportion out of the total population has also significantly increased from about 0.1 percent in 1990 to 2.85 percent in 2015. In 2017,

their number was estimated at about 1.58 million, about 3.05 percent of the total population.



[Figure 1] The trends on the number of long-term foreigners in Korea and their proportion out of the total population (counts,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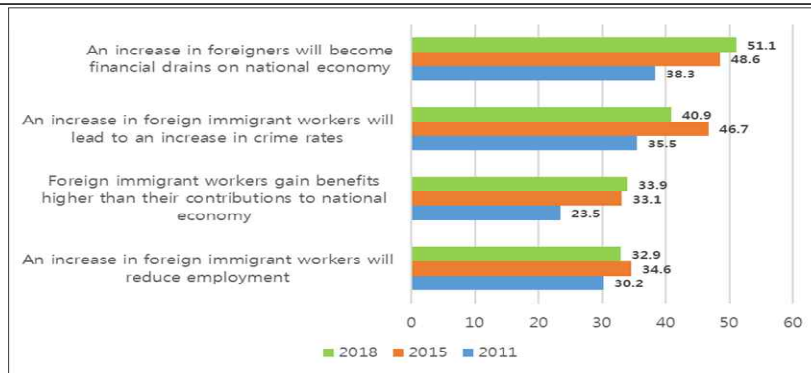
Source: The Korean Ministry of Justice, KIS Statistics published in each year

The largest percentage of them, 41.9 percent, were found to be low-skilled workers and the second largest percentage of them, 13.9 percent, were spouses married to Korean nationals. Such a growing population of foreigners has significant implications for the country's demographics, for long-term foreigners can lawfully obtain citizenships and give birth to babies who acquire birthright citizenships. The number of naturalized foreigners in Korea has rapidly increased through general, facilitated, and special processes, each available for those with over five years of residence, over two to three years of residence maintaining marital status with a Korean national, and spouses of first- and second- generation of overseas Koreans. In 2017, the number of naturalized Korean citizens was increased to 169,535 or 9.1 percent of the total population of foreign residents in Korea and the number of their children stood at 212,301 or 11.4 percent of the total.

Although the proportion of foreigners or population of foreign origins staying in Korea is relatively low compared to many other countries, Korea, at least since 2000, has been noted for its fast growing foreign populations. One of the primary causal factors for the increase seems to be the declining number of working population due to low birth rates and ageing demographics. Despite the Korean government's efforts to curb low birth rates, it has continuously declined to hit a record low of 0.98 in 2018. It has been predicted that the Korean population will reach its peak in 2028 and continue to decline thereafter. In the light of the trends, the Korean government is likely to encourage the inflow of foreigners.

In view of the trends, growing immigrant populations seems inevitable. However, public acceptance of multiculturalism still remains at a low level, which can lead to a rise in prejudice, stereotyping, discrimination and exclusion of immigrants, and inter-group conflicts. A long-term economic downturn can also contribute to an increase in the incidence of hate crimes. Although the country has not yet witnessed controversial hate crime cases, it has seen the increasing manifestations of hatred, xenophobia, and anti-multiculturalism.

Until the mid-2000s there was a consensual belief within and among academic circles, NGO communities, and the public in the inevitability of multiculturalism and the need for embracing cultural diversity. However, a recent survey conducted by the Ministry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 in 2018 on the public acceptance of multiculturalism showed that the scores for acceptance of multiculturalism among Korean people aged over 20 had declined by 1.14 points from 52.8 points in 2015. In particular, the acceptance scores for low-income households showed a sharp decline compared to 2015, presumably due to the impacts of long-term recessions on employment.



[Figure 2] Immigrant-related Threat Perception (2011, 2015, 2018)
Source: The Korean Ministry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 The Survey on Multicultural Acceptability in Korea, 2011-2018

In respect of the public's immigrant-related threat perception, the survey shows that 51.1 percent of Korean respondents were found to perceive immigrants as economic drains while 40.9 percent, 33.9 percent, and 32.9 percent, respectively, perceived immigrants as increasing crime rates, contributing little to economy, and depriving them of wage and employment. Compared to 2015, the Korean public showed lower immigrant-related threat perception on wage and employment and crime rates, but higher threat perception on immigrants' little contribution to economy and their being financial drains. When compared with the results of Euro Barometer, the Korean public has relatively lower threat perception on employment but has paralleled the Europeans on crime rates and financial drains.

In 2007, the first national demonstration was held in support of strengthening law enforcement activities against illegal immigrants. In the aftermath of the protest, anti-immigrant sentiment rapidly grew and many anti-immigrant groups, some of them include the Citizen Solidary against Crimes of Foreigners, Anti-Multiculturalism and Multicultural Policies, and Citizen Solidary against Foreign Immigrant Workers, were formed ostensibly opposing multiculturalism. These groups stoke antipathy, fear, bigotry, and anxiety about immigration and marginalize immigrant groups to fuel xenophobia. The mass media and entertainment industries are also said to contribute to a rise in anti-immigrant, anti-multicultural, and xenophobic sentiments by portraying immigrants, especially Chinese of Korean descent residing in Korea, as likely to commit crimes and ethnic enclaves as dens of crimes.

A survey on violence experiences of Koreans and foreigners conducted by the Korean Institute of Criminology in 2016, despite a lack of probability sampling by design, suggests possibilities of incidence of hate crimes in the country. According to the survey, there was no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the groups of Korean nationals and foreign nationals with respect to a violent victimization rate - the former was 8.4 percent and the latter was 7.2 percent. However, it was found that foreign nationals were victimized in large part due to their positions of vulnerability and exclusion, discrimination, and hatred against foreign immigrant workers.

As Korea has less ethnic diversity, no history of ethnic cleansing or racial discrimination, and relatively low risk of terrorism, it has been less important to define the concept of hate crime and enact any special legislations against it. For this reason, the country has no criminal provisions on hate crimes. However, as the country is a State Party to the International Convention on the Elimination of All Forms of Racial Discrimination, it is obliged to deter incitement or promotion of racial discrimination or any other propaganda activities, it is expected to enact laws that prohibit hate crime.

Despite the absence of penal provisions on hate crimes, since 2003, the Korean government has adopted various policies aimed at fostering understanding of and respect for foreigners among the local population and facilitating the integration of foreigners into the Korean society and their well-being since. In other words, although the Korean government has not enacted legislations that proscribe hate crimes against

foreigners living in the country, it has put in place facilitative and formative regulations and measures that can prevent the incident of such crimes.


Two most fundamental policies for social integration of immigrants are the Master Plan for Immigration Policy supervised by the Ministry of Justice and the Master Plan for Multicultural Family Policy by the Ministry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 Both plans, now in their third phase, were first implemented in 2008 and are legally required to be formulated and implemented for every five-year. Except that the two plans are each focused on different groups, they have similar policies aimed at increasing embracing of multiculturalism and reducing discrimination through waging public awareness campaigns, providing supports to foreign national households, eliminating discriminatory policies in public administration, and holding human rights education for public employees and the public. The Korean government has spent enormous amounts of budget for the programs. In their first years, the amount of budget stood at KRW 200 million, but was increased to KRW 127.2 billion in 2014. The total budget of the program would stand at KRW 200 billion, if the budgets for local governments are counted.

Through implementing the first and second phase of the master plans, the Korean government made significant short-term achievements, some of which include development of the basis for supporting multicultural households, expansion of tailored-service to the families, and implementation of various programs and policies for raising public acceptance of multiculturalism. The limitations of the programs have also been pointed out, however. Some of them include deep-seated discriminatory and exclusive attitudes of Korean nationals towards immigrants and foreigners perhaps rooted in their long history of ethnic homogeneity, a heavy focus of the program on integration of foreigners married to Korean natives, and a misplaced focus on cultural assimilation of immigrants at the expense of cultural integration, and inefficiency and administrative overlaps.

In order to overcome the shortcomings, the Korean government has put in place mechanisms for allowing for efficient public service delivery, strengthening the efforts of both Korean and foreign nationals in cultural integration, and mainstreaming immigrant integration policies. The government now also considers establishing an overarching institution of policy formulation and an immigrant family support fund whose contributions can be fines, penalties imposed on foreign nationals for law violations.


<그림6> 김지선 선임연구원 발표문





Suspected hate crimes reported to police in Finland

Jenita Rauta, PhD
Police University College, Finland



Collection and classification of hate crimes

- Police reports are searched from the police information system using electronic search engine and several different search parameters (for example 125 criminal titles and 350 keywords)
- Classified as hate crimes
 - if one of the parties or the police considered the motivation for the crime to be the victim's real or perceived membership of a "protected" group
 - if there is other clues about the bias motivation for example insults used during the offence
 - if police have marked the report with the hate crime code

Suspected hate crimes reported to police

- The Criminal Code of Finland does not include a definition of hate crime or hate speech
 - Motive as grounds for increasing the severity of the punishment (aggravating circumstances)
- Statistical reports on racist crime have been published annually since 1998
 - more extensive system of monitoring hate crime in 2009
- Definition of hate crime:

a crime against a person, group, somebody's property, institution, or a representative of these, motivated by prejudice or hostility towards the victim's real or perceived ethnic or national origin, religion or belief, sexual orientation, transgender identity or appearance, or disability

Published data and available variables in every bias motive

- Suspected hate crimes grouped by different bias motives
 - subgroups in hate crimes based on religion or belief and sexual orientation, gender identity or appearance
- Type of crime
- Circumstances of crime
- Location of crime
- Regional occurrence of crimes
- Time of crime
- Information on victims and offenders (for example age, gender, nationality)
- Relationship between the victim and the offender

20 years of hate crime statistics



Number of suspected hate crimes 2011-2017



Hate crime reports by bias motive 2017



- 2016: ethnic 77 %, religion 13,8 %, sexual orientation 4,2 %, transgender identity 1,1 % ja disability 3,9 %

Ethnic or national origin



Religion or belief



Sexual orientation, gender identity or appearance



Disability




Thank you!

jenita.rauta@poliisi.fi

<그림7> Jenita Rauta 핀란드 경찰 대학 연구원 발표자료

The 28th CCPCJ Side Event on
“Addressing Hate Crimes against Refugees and Immigrants
in Europe and Asia-Pacific”

Wednesday, 22 May 2019, 01:10-02:00 p.m., Conference Room MOE 100

Co-organizers:

- The European Institute for Crime Prevention and Control (HEUNI)
- The Korean Institute of Criminology (KIC)

Background

The motivating factors of hate crimes targeting refugees and immigrants are found to be prejudice, intolerance, and discrimination on the basis of race, religion, sexual orientation, and nationality. Europe as a region, despite its subsided ethnic nationalism in the 19th century, has recently witnessed a resurgence of xenophobia, radicalism, and populist right-wing ideologies amid an increase in the arrival of asylum seekers and foreign immigrant workers. The anti-immigrant politics is geared to stoke fear of immigrants and sexual and ethnic minorities and blame them for the loss of ethnic and cultural identities and the deterioration of socioeconomic conditions. In Asia-Pacific, sub-regions with varying degrees of ethnic and cultural diversity have different risk factors for hate crime against refugees and immigrants. While many ethnically homogeneous countries in Northeast Asia faced with a growing number of asylum seekers and migrants are searching for ways to reduce prejudice and bias against multiculturalism, many ethnically heterogeneous countries in Oceania are tackling targeted speech and violence against ethnic and religious minorities.

Objectives

- Gauge the actual extent of hate crimes motivated by prejudice against and intolerance towards refugees and immigrants
- Identify possible legal and policy solutions that can promote respect, safety, and dignity of the vulnerable groups.

Agenda

01:10-01:20 p.m. Opening and Participant Introductions

- **Mr. Ilias Chatzis**

Chief of the Human Trafficking and Migrant Smuggling Section, United Nations Office on Drugs and Crime (UNODC)

01:20-01:50 p.m. Presentations

- **Dr. Jenita Rauta**

Researcher, Police University College, Finland

- **Dr. Rick Brown**

Deputy Director, Australian Institute of Criminology (AIC)

- **Dr. Ji Sun Kim**

Senior Research Fellow, Korean Institute of Criminology (KIC)

01:50-02:00 p.m. Discussion & Closing



<그림9> KIC-HEUNI 홍보 리플렛

* PNI 춘계 미팅

**2019 Spring Coordination Meeting
of the United Nations Crime Prevention and
Criminal Justice Programme Network**

Vienna, Austria

**Tuesday 21 May 2019
13.30-15.00
VIC, Room MOE05**

AGENDA

1. Opening of the meeting and tour de table
2. Adoption of the agenda
3. Review of the decisions and recommendation taken at the 2018 Autumn Coordination Meeting
(see annex 1)
4. Update from network members,
 - *Short update from each member, especially in relation to the implementation of the Doha Declaration on integrating crime prevention and criminal justice into the wider United Nations agenda to address social and economic challenges and to promote the rule of law at the national and international levels, and public participation*
 -
5. Preparations for the 14th UN Congress on Crime Prevention and Criminal Justice in Japan
 - *Status report on the Congress preparations*
 - *The PNI workshops – updates from the respective focal points and discussion regarding input from other PNI to the workshops*
6. The PNI at the 28th session of the CCPCJ
 - *Update on the PNI workshop on Hate Crimes Prevention*
 - *Other events and activities*
7. The Knowledge Center
 - *Status report*
8. Organisation, Coordination and other issues of the PNI
 - *Follow up to the meeting in Tokyo in December 2018 (see Annex 1 p. 4)*

Decisions and recommendation taken at the 2018 Autumn Coordination Meeting Decisions and recommendations from the meeting

1. Congress preparations

- Contact www.un-congress.org
e-mail Mr Gary Hill regarding interest of PNIs regarding the ancillary meetings and related activities at the Kyoto Congress, and demonstration of the Knowledge Centre at the Kyoto Congress
- PNIs interested in participating in specific Workshops at the Kyoto Congress were invited to contact the responsible PNI.

2. The 28th session of the CCPCJ

- ICCLR, ICPC and NIJ, will, with other potentially interested PNIs, host the PNI workshop
- PNI members may explore participation in panels organized by Member States on thematic discussions.
- The PNI brochure will be published by UNAFEI. UNAFEI will soon contact each PNI for revisions and updates of information obtained in brochure.
- The PNI flyer will be published by RWI.
- PNIs interested in holding a side event at the 28th session were advised to contact the UNODC between 25 March and 11 April 2019. Such PNIs were advised to consider the possibility of consolidating planned side events, possibly together with the Member States.

3. Knowledge centre

- PNIs were invited to provide Mr Hill with updates to be included in different elements of the Knowledge Centre (www.justiceknowledgecenter.org)
- PNIs were invited to consider spreading information regarding the possibility of serving as volunteers at Kyoto Congress.

4. Role of the PNIs in the UN Crime Programme

- the UNODC shall contact the PNIs regarding UNODC public advocacy office messages, for further circulation through their own social media contacts
- interested PNIs were invited to send, on a selective basis, information on projects and other activities to the UNODC public advocacy office (to: Ms Helene Spitzer, cc Mr John Brandolino)
- interested PNIs were invited to continue to explore possible synergies among themselves and the UNODC on projects and other activities
- a variety of actions for raising the PNI profile are to be explored, with a continued discussion at the next PNI coordination meeting in May 2019: working through national delegations, working on template language in draft resolutions, more PNI statements at the Commission plenary, a more action-oriented consolidated PNI statement, statements at regional prep meetings, a PNI logo, a PNI Twitter account, a Facebook account, a LinkedIn account, a Facebook page for exchanging ideas, possible use of the GoToMeeting or Teamwork websites, exploration of joint PNI funding opportunities.

5월 21일 화요일 13:30분부터 진행된 PNI 추계 회의에서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승재현 팀장은 2020년 교토 총회에서 진행될 워크숍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였다. (발표 자료 별첨)



* 붙임: 국외출장 세부계획안

**제28차 유엔 범죄예방·형사사법 위원회 연례회의,
UNPNI 춘계 조정회의 참가 및 Side event 개최**

2019. 5. 30.
국제협력센터

■ 출장 개요

● 출 장 자 (총 3명)

구분	성 명	소 속	직 급
1	김지선	범죄예방·처우연구실	선임연구위원
2	박윤석	형사법제연구실	파견부장검사
3	승재현	국제협력센터	팀장

● 출장 일정

구분	성 명	소 속	직 급	일 정
1	김지선	범죄예방·처우연구실	선임연구위원	2019.5.19.~ 2019.5.25. (5박 7일)
2	박윤석	형사법제연구실	파견부장검사	2019.5.19.~ 2019.5.25. (5박 7일)
3	승재현	국제협력센터	팀장	2019.5.19.~ 2019.5.23. (3박5일)

● 출 장 지

비엔나, 오스트리아

■ 출장 일정

날짜	지역	시간	내용	비 고
19일 (일)	서울 출발		비엔나 도착	
20일 (월)	오스트리아 빈	10:00 ~ 18:00	CCPCJ 참석 : 의제 1, 2, 3	회의 개막, 의장단 선출, 의제 채택, 일반 토의 등

21일 (화)	오스트리아 빈	10:00 ~ 13:00	CCPCJ 회의 참석 : 의제 5	의제 5. 불관용 또는 차별로 인해 발생하는 범죄를 예방 및 대처하는 데 있어 효과적이고 공정하며 인도적이고 책임감 있는 형사사법 제도의 책무 : <u>승재현 팀장 주제 발표</u>
		13:30 ~ 15:00	UNPNI 준계조정회의 참석	형사정책연구원의 2018년도 연구 성과 및 기관 활동 발표 및 2020년 범죄예방 총회 논의 : <u>승재현 팀장</u>
		15:00 ~ 18:00	CCPCJ 회의 참석 : 의제 5 계속	의제 5. 불관용 또는 차별로 인해 발생하는 범죄를 예방 및 대처하는 데 있어 효과적이고 공정하며 인도적이고 책임감 있는 형사사법 제도의 책무 : <u>승재현 팀장 주제 발표</u>
22일 (수)	오스트리아 빈	10:00 ~ 13:00	CCPCJ 회의 참석 : 의제 4	의제 4. 경영, 예산, 행정사항
		13:00 ~ 14:00	KIC-HEUNI side event 공동 개최 「유럽 및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난민과 이주민 대상 증오범죄 대응방안」	「한국에서의 이주민대상 증오범죄에 대한 대응책」 <u>김지선 선임연구위원 발표</u>
		15:00 ~ 18:00	CCPCJ 회의 참석 : 의제 6	의제6. UNODC 및 당사국의 범죄 예방·형사사법 분야 통합·공조 노력
22일	빈 출발		승재현 팀장	
23일	서울 도착		승재현 팀장	
23일 (목)	오스트리아 빈	10:00 ~ 18:00	CCPCJ 회의 참석 : 의제 7, 8, 9	의제7. 범죄예방 및 형사사법 분야에서의 유엔 기준과 규범의 적용 및 활용 : <u>박윤석 부장검사 발표</u> 의제 8. 범죄예방·형사사법 세계 동향, 최근 이슈 및 대응방안 의제 9. 제13차 범죄예방·형사사법 총회 후속조치 및 제14차 범죄예방·형사사법 총회 준비
	빈 출발		승재현 팀장 (빈 출발)	
24일 (금)	오스트리아 빈	10:00 ~ 18:00	CCPCJ 회의 참석 : 의제 10, 11, 12, 13	의제 10. ECOSOC 활동에 대한 기여(2030 지속가능개발 의제 이행 관련 검토) 의제 11. 제29차 회의 잠정의제 의제 12. 기타 이슈

			의제 13. 제28차 회의 보고서 채택
	빈 출발	박윤석 파견 검사	
25일 (토)	서울 도착	박윤석 파견 검사	

■ 제28차 유엔 범죄예방·형사사법위원회 일정

의 제	의제검토 기관	발언기관
1. 의장단 선출		
2. 의제 채택 및 회의 조직문제		
3. 일반 토의		
4. 경영, 예산, 행정 사항		
5. 주제토론: 불관용 또는 차별로 인해 발생하는 범죄를 예방 및 대처하는 데 있어 효과적이고 공정하며 인도적이고 책임감 있는 형사사법제도의 책무		형사정책연구원
6. UNODC 및 당사국의 범죄예방·형사사법 분야 통합·공조 노력 (a) UN 초국가적 조직범죄 방지 협약과 그 의정서 비준 및 이행 (b) UN 반부패협약 비준 및 이행 (c) 테러 예방 및 대응 관련 협약 비준 및 이행 (d) 기타 범죄예방·형사사법 사항 (e) UNODC의 기타 활동 (UN 범죄예방 및 형사사법 프로그램 연결망, NGO 및 기타 기구들 중심)		
7. 범죄예방 및 형사사법 분야에서의 유엔 기준과 규범의 적용 및 활용		형사정책연구원
8. 범죄예방·형사사법 세계 동향, 최근 이슈 및 대응방안		
9. 제13차 범죄예방·형사사법 총회 후속조치 및 제14차 범죄예방·형사사법 총회 준비		
10. ECOSOC 활동에 대한 기여 (2030 지속가능개발의 제 이행 관련 검토)		
11. 제29차 회의 잠정의제		
12. 기타 이슈		
13. 제28차 회의 보고서 채택		